

특별특리소

부안군, 외식업소 3無 운동 추진

부안군이 지난해 외식업소 불친절·바가지요금·원산지미표시 없는 3無 운동 선포식을 개최한 가운데 올해는 외식업 부안군지부와 함께 3無 운동이 전 외식업소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올 초 외식업 부안군지부 운영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3無 운동의 확산을 위해 부안군과 외식업 부안군지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했으며 오는 3월 300여 명의 외식업소 영업주가 참여하는 위생교육시 3無 운동 확산 결의식 갖고 외식업소 영업주의 3無 운동 동참 의지를 다짐 계획이다.

군은 또 매월 3일을 전 외식업소 영업주 3無 운동 참여의 날로 지정해 불친절·바가지요금·원산지 미표시 없는 클럽의 날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군에는 변산 격포, 곰소 주변에서 자정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외식업소의 환경정비를 병행해 관광객을 맞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16년 재경 부안군 향우회 신년

재경 부안군 향우회(향우회장 장종대) 2016년 신년인사회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국립부민컨선 웨딩홀에서 장종대 향우회장을 비롯한 김종규 부안군수, 임기태 부안 군의회 의장, 김준진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장종대 향우회장은 신년사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 부안을 떠나 타 지역에 뿌리를 내린 향우는 부안이란 말에 가슴 벅찬 환희를 느낀다"며 "그 말 한마디에 더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 교월동 쌀밭직불제 신청접수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동장 박산문)는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중 교월동 접수대상 농가에 대해 2016년도 쌀밭직불제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2016년 쌀밭직불제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보리, 밀, 사료작물 등 논 이외작이 있는 경우는 3월 15일까지 신청을 마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는 농가들이 신청기관을 이종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경영체 등록과 직불제 접수를 통합하여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2015년도와 경작상황이 전혀 변동 없는 농가도 빠짐없이 신청하여야 하며 특히 변동사항이 있는 농가는 임대차계약서 및 경작확인서 등 추가 구비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므로 직불제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농가는 주민센터 전화 063-540-4969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도 지방세정평가 최우수

부안군이 2015년 전북도 지방세정 종합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지방세 세수실적, 세정운영 및 세외수입 운영 등 20개 항목별로 평가해 종합 합산했다.

부안군은 지방세 부과징수, 세무조사실적, 현년도 과태료 징수를 등에서 골고루 높은 평점을 얻어 군부 최고 평점을 받았다.

부안군은 지난해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펼쳐 납기 내 징수를 향상과 체납자에게는 사전예고 후 변호관 영치 및 부동산 공매처분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적극 실시했으며 세외수입 팀을 신설해 과태료 징수에 집중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사진은 김동수 가옥으로 김동수의 6대조인 김명래(金命寬)이 조선 정조 8년(1784)에 건립한 주택이다. 일명 아흔 아홉 칸 집으로 불린다.

정읍시 문화유산 적극 활용

'살아 숨쉬는 무성서원 만들기' · 김동수가옥 생생 체험 프로그램 등

정읍시가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올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문화재는 무성서원(사적 제168호)과 김동수가옥(중요민속자료 제26호)이다.

무성서원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서원으로 통일신라 때 정읍 태산군수를 지낸 고운 최치원 선생을 모셨던 태산사에서 유래됐고 1696년(숙종 22년)때 사액을 받았다.

조선말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아나한 전국 47개 서원 중 전라북도 내 유일의 서원으로 가치가 매우 크며 원형이 잘 남아 있다.

시는 2년전부터 이러한 역사성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무성서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올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

이다. 무성서원에 배향돼 있는 최치원 선생을 비롯한 7분의 선현을 향사하는 제례행사 체험을 비롯 '알알알 사관학교', '그 때 그 시절', '12세 유학생 최치원 국제정치를 배우다!' 등 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1박 2일 프로그램의 경우 당일에는 서원 배향 인물의 철학과 학문성향·가족관계·주변인물 등 인문학 강좌 중심으로 강당에서 진행하며, 다음날은 상춘곡 김, 김동수가옥, 피향정 등 정읍의 대표적 문화유적지 답사가 곁들여진다.

시는 단체 또는 개인별로 희망자를 접수받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동수 가옥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김동수 가옥의 향기를 찾아서'와

'고택한옥문화 체험'이다. 시는 한옥에 대한 명칭·구조·미학·풍수·건축·조경 등을 스토리를 엮어 이야기하고 한옥 모형을 만드는 체험과 한옥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을 1박2일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당일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김동수가옥에서 한옥을 체험하면서 풍수·건축·조경 등을 직접 접해 보고 느껴 볼 수 있다.

김동수가옥은 김동수의 6대조인 김명래(金命寬)이 조선 정조 8년(1784)에 건립한 주택으로 일명 아흔 아홉 칸 집으로 불린다.

전통적인 배산임수의 터에 자리잡고 있고 원형대로 보존돼 있는데다 균형미와 세련미가 돋보인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농기센터, 고품질 지황 재배 위한 기술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8일 고품질 지황 재배를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지황을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130여명이 참석했다. 기술센터는 이날 품종선택과 병해충 방제, 수확 노동력 절감과 수확 후 관리 요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정읍은 90년대 후반 전국 생산량의 65%를 차지 할

정도의 지황 주산지였을 뿐만 아니라 품질 또한 전국 최고를 자랑했다. 하지만 수입 농산물 개방으로 소득 감소와 연작장애 등으로 재배 면적이 급감했다.

이후 기술센터는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2년 농촌진흥청 육성 신품종인 '토강'과 '고강', '대경' 등의 지역적응 시험과 함께 '2014년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지황 증진

저장고와 트랙터 부착용 수확기를 지원하고 지난해에는 습해 예방을 위한 고육재배(높은 이랑 가꾸기) 실증시험 등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칠보농협 공동지점과 매년 18 ~ 35ha의 계약재배를 실시하는 등 생산과 유통, 가공 판매에 이르는 체계를 구축했고, 특히 지난해 2월에는 '정읍지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마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돈협회 김제지부, 이웃사랑 실천

400만원 상당 고기 김제시 전달

(사)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회장 김일홍)는 2016년 2월 19일 이웃사랑 실천으로 김제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한돈 400만원 상당을 김제시에 전달했다.

'이웃사랑 한돈 나눔행사'는 김제시에서 폐지를 사용하는 한돈 농가들이 조성한 기금과 한돈자조금으로 한돈 소비촉진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작은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으로 애민안료원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일홍 한돈협회 김제지부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런식 김제시장은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돈협회 김제지부의 이웃사랑실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정성이 담긴 사랑의 돼지고기는 관내 소외된 시설과 이웃들에게 큰 선물일 것이라며, 한돈협회의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는 돼지사육 49회원농가로 구성되었고 매년 김제시에 후원품을 기증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도 두차례 1,110kg(75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하는 등 매년 한돈나눔행사를 통하여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오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항공예찰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총력

정읍시, 상·하반기 항공예찰

정읍시가 올해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총력을 쏟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전파되며, 감염된 나무는 붉게 말라가며 100% 죽는 치명적인 병해이다.

시는 '인근 순창군과 임실군에 이미 재선충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한시도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달 1일부터 읍면동에 소나무재선충 신고 센터를 개설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병해충 방제단을 활용해 관내 소나무 고사목 찾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한 차례씩 항공예찰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양심북부

시장과 산림부서 공무원 그리고 병해충예찰단장 등 관계자들은 산림청 헬기를 타고 예찰활동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헬기에서 예찰을 하고 GIS장비로 위치를 파악한 후, 지상에서 고사목 제거 및 시로 검경의뢰를 통해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3월 중에는 임업휴게사 및 조경수 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재선충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교육시 재선충병예방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5월에서 8월까지 재선충병이 발생한 임실과 순창 경계 지역인 신이면, 신내면의 주요 노선 및 입구에 대한 지상방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and gift sets. Text include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러운 맛에 뒤이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It also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